

200자 안내

고래의 노래

구혜영 지음

「칸나의 뜰」 「광상곡」의 작가가 쓴 장편소설로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변화하면서 순수한 남녀간의 사랑이 본능적인 정욕에 가리워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줄거리는 6·25때 청춘을 보낸 연애신봉자들이 인생의 말엽에 겪는 퇴색한 사랑과 이들에게 새롭게 사랑의 의미를 되찾아주려는 주인공의 시도로 이루어진다.

한빛 / A5신 / 316면 / 3400원

論語에세이

정주환 지음

논어의 매력은 거기에 수록된 많은 말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면서 실천에 꼭 옮겨야 할 이야기라는 점에 있다. 이 책은 논어 가운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45가지로 간추려 쉽게 풀어 소개했다. '중용의 덕' '부자간의 애정' '실결과 형식' 등 삶의 지표가 될 만한 내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친근한 孔子를 만날 수 있다.

문학관 / A5신 / 270면 / 3000원

하얀 젊음의 여백

사회와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엮음

서울에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집한 낱서 259편.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각 대학 서클의 낱서장에서 수집한 것이 대부분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낱서들에 가까운 낱서에서부터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

오늘 / A5신 / 324면 / 3500원

오피셜 스토리

아이다 볼트닉 지음 / 한명준 옮김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정치 테러의 진상을 폭로한 소설. 줄거리는 정치보복으로 희생된 정치범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매매시키거나 권력층에 입양된 사실이 밝혀져, 자식을 찾는 어머니들의 행력이 이어지면 서부터이다. 원래 '추악한 전쟁'이 보여주듯 은밀하게 자행되는 독재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옹호하려는 소설.

모아 / A5신 / 316면 / 3500원

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김경란 지음

선천성 심장병을 이겨낸 서동희 어린이와 그 가족 이야기를 적은 글.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의 소중함을 터득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하고자, 어머니가 직접 쓰고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다. 동화가 바라본 세상, 어머니가 겪고 느낀 일들, 전문가들이 심장병에 관해 쉽게 쓴 글, 세부분으로 엮어졌다.

대교문화 / A5신 / 204면 / 2500원

삶의 진실을 찾는 여성을 위하여

미라벨 모건 지음 / 유진아 옮김

'미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지명되었던 저자가 일상생활에 부딪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 수필집. 근심걱정에서 벗어나는 비결, 능력의 폭을 넓히는 비결, 지켜있는 여성들을 위한 비결 각각 4가지씩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학출판사 / A5신 / 284면 / 3300원

천재 교과지도

황백현 지음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부모·교사들이 자녀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취할 지도방법을 다룬 책. 학습의욕진단과 학습요인검사, 그리고 학습동기 진단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수준에 맞는 교과지도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영사 / A5신 / 254면 / 3000원

키에르케고르 선집

최혁순 옮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글과 그의 생애에 관한 글들을 모아 엮었다. 키에르케고르가 생전에 남긴 「이것이냐 저것이냐」, 「공포와 전율」, 「철학적 단편」, 「죽음에 이르는 병」, 「현대의 비판」 등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모았다.

집문당 / A5신 / 298면 / 3500원

평화를 위하여

김대중 지음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최근 연설문 18편을 엮은 책. 1987년 7월 오랜 투옥·연금 생활 끝에 사면복권된 이후 처음으로 행했던 연설로부터 금년 봄 중간평가에 대한 연설까지 그의 정치철학을 담은 것들을 수록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군사권위주의 체제의 구각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학민사 / A5신 / 354면 / 3800원

江青

珠珊 지음 / 沈哲湖 옮김

4인방을 주도하며 문화혁명 당시 여황제로 군림했던 강청의 일대기를 야사적으로 다룬 작품. 1912년 산둥성 대안에서 출생하여, 여배우 생활을 거쳐 모택동과의 결혼으로 중국 정치의 막후 실력자 중 한사람으로 부상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중국 현지에서 발간 1주만에 1백만부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던 화제작.

청한 / A5신 / 330면 / 3800원

노인보전

조유향 편저

노인보전은 노화의 진행을 억제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감소케 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노화의 의미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인의 특성을 기술하고 노인병의 특징과 발견방법을 설명하면서 노인의 생활과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 운동, 지적 생활에 대해 살폈다.

현문사 / A5 / 282면 / 6000원

우리말 감각어연구

정재운 지음

우리말의 감각동사의 의미를 어휘미론의 바탕 위에서 분석한 연구서. 감각동사란 사물 자체의 속성이나 인간신체 내부의 어떤 감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말은 특히 색채감각어, 미각어, 온도감각어가 더욱 발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감각동사의 의미를 인간의 근본인식 양상에 근거하여 분석, 그 어휘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신문화사 / A5신 / 152면 / 3500원

한살박이 부부 신혼방정식

김호운 지음

1978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 「유리벽 저편」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한 이후, 「빗 속의 연가」 「불베」 「풀잎 연가」 등을 발표한 작가의 연작 장편소설.

한쌍의 신혼부부가 겪는 31가지의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통해 사랑과 미움, 이해와 갈등이 얽혀 있는 결혼의 함수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글사랑 / A5신 / 306면 / 3500원

한(恨)의 한국인 황공해하는 일본인

가게 히데아키 지음 / 편집실 옮김

한국과 일본의 민족성, 깊이 뿌리내려 있는 민족간의 차별의식, 두나라의 문화적·정치적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살피고 있다. 「한국인은 왜 일본인보다 과격한가?」 「욕설하는 말이 참으로 풍부한 한국어」 「한국에는 대대로 내려온 유명한 가게가 없다」 등 일본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단편들

이 흥미를 끈다. 저자는 일본의 외교 평론가.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 A5신 / 250면 / 3300원

유들유들하게 삼시다

스스끼 겐지 지음 / 변태관 옮김

30여년 동안 일본 NHK방송국의 진행자로 활동해오고 있는 저자가 내놓은 인생경영 철학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머리가 좋거나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감각과 기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新書出版社 / A5신 / 222면 / 3000원

傳統倫理와 現代社會

金裕赫 지음

우리의 전통윤리를 올바르게 체득하게 이해함으로써 미래에의 도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 책. 국민윤리교육에 대한 회고 및 반성과 아울러, 퇴계·율곡·정약용 등 유학자들의 철학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를 두루 살피고 있다.

청담서림 / A5신 / 446면 / 7500원

참과 거짓

장영달 지음

「민청학련사건」과 「5·31천천항쟁」으로 옥고를 치렀던 장영달씨(현재 평화민주당 부 대변인)의 옥중기록과 자전적 수필 모음. 자신의 기독교 신앙관, 정치적 신념, 그리고 교도소 생활 등이 솔직하면서도 힘있게 서술돼 있다.

형상사 / A5신 / 266면 / 32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89년 여름)

[기획1] 사회민주주의의 실상 ▲전환기 한국 정치의 몇가지 문제(이수인) ▲문학과 사회변화(권오룡)

[기획2] 방송민주화와 이데올로기 ▲전환기 한국방송의 이데올로기(홍석경) ▲방송민주화 운동이란 무엇인가(이재훈)

[오늘의 한국문학] ▲이별의 '가'와 '속'(정과리) ▲신생의 소설(임우기) ▲관계를 잃은 관계(진형준) ▲이데올로기 모티프와 문학(김주연) ▲소설상의 실험과 실험적 소설의 가능성(장경렬)

[논문] ▲문학비평의 근대성과 유토피아(류철균)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서의 가치증식과 그 형태(정운영) ▲한글의 운용과 한글맞춤법(이현희)

[서평] 김동원·반경환·구모룡·황현산·이원균

[시] 이성복·이기철·김혜순·송재학·김신용·김휘승

[소설] 김원우·임철우

창작과 비평 (89년 여름)

- [지상토론] 현단계 민족문학의 상황과 쟁점 (구모룡 · 백진기 · 임규찬 · 조만영 · 홍정선)
- [논문] ▲한국보수야당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위상(박형준 · 정관용) ▲한국의료보장제도의 정치경제학적 이해(김록호) ▲한국전쟁과 에치슨발언(커밍스)
- [비평] ▲여성문제의 소설적 형상화(김영혜) ▲주체문예이론의 대중노선에 대하여(유중하) ▲소련에서의 조명희(김성수) ▲민중영화운동의 새로운 전개(김대호)
- [시론]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박원순)
- [서평] 조재훈 · 김진경 · 안치운 · 허남진
- [시] 문병란 · 김지하 · 정호승 · 고광현 · 김광렬 · 서태석
- [소설] 박완서 · 김춘복 · 이은식

창작과비평사 / A5신 / 422면 / 4000원

세계의 文學 (89년 여름)

- [특징] 미셸 푸코 ▲養生의 미학으로서의 윤리(이광래) ▲미셸 푸코를 통한 니체사상의 재발견(홍광업) ▲미셸 푸코의 사회철학(윤희중) ▲미셸 푸코 사상의 미학적 의미(한인선)
- [논문] ▲音樂修史學(이강숙) ▲소련의 해금문학(추빈스키 · 리카초브) ▲보드레르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발터 벤야민)
- [시] 김춘수 · 김규동 · 박재삼 · 윤희명 · 이기철 · 김수복 · 최승호 · 박남철 · 이운택 · 박덕규 · 송재학 · 권석창 · 차옥혜 · 김영승 · 주창윤 · 함민복
- [소설] ▲달궁 29(서정인)
- [서평] 이남호 · 구모룡 · 김동원 · 우한용
- [오늘의 작가상] 섬(이석호)

민음사 / A5신 / 460면 / 4000원

역사비평 (89년 여름)

- [시론] 대학 한국사교육, 현대사 강의가 없다(강만길)
- [발제와 토론]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최장집, 서중석, 이종범, 조희연, 김민석)
- [특집] 북한과 미국과 6·25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권영진) ▲휴전회담 교착과 미국의 전략(정해구) ▲6·25직후의 북한과 남한(박찬표)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이태섭)
- [역사와 민중] ▲'쌀'과 제국주의(이이화) ▲루이 16세 처형이 주는 역사적 교훈(주섭일)
- [기획논문] 백남운 연구 I(방기중)
- [역비논단] 한국 동양사학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하세봉)
- [쟁점] 박헌영과 남로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헌영 · 남로당에 대한 비판을 비판한다

(이미숙) ▲박헌영 · 남로당노선 무엇이 문제인가(정병준)

역사문제연구소 / A5신 / 386면 / 4000원

무크

문학예술운동(제3집)

- [특징] 현단계 문예운동의 비판적 조망 ▲80년대 노동현장 문화예술활동의 궤적(라원식) ▲리얼리즘문제의 재인식(김명인) ▲민중극의 발전과 민중극으로서의 전망(이영미) ▲만화운동의 위상정립을 위하여(만화사랑)
- [시론] ▲신데타트 국제정세와 북방정책(홍현기) ▲전국민중민주운동연합 결성의 의의와 나아갈 길(이성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결성과 방향(강형철)
- [기획] 나는 이렇게 쓴다(홍희담 · 윤정모 · 이정자 · 정도상 · 김인숙)
- [수기]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유연)
- [보고서] 노래극 '노동의 새벽' 지역순회공연 보고(극단 현장)
- [시] 김남주 · 민혜문 창작단 · 민병일
- [소설] 사흘낮 사흘밤(심산)
- [서평] 문제는 리얼리즘인데(김남주)

풀빛 / A5신 / 440면 / 4000원 /

오늘의 정치경제학

- [특집] 새로운 사고를 둘러싼 변혁론 논쟁 ▲소련: 소련 공산당 부속 사회과학대학의 테제에서 / 새로운 정치적 사고와 노동운동의 제문제(차르킨) / 현대사회민주주의론(크라신) ▲체코의 비판: 보편적 · 인류적인 것과 계급적인 것(야로스라프크헤라) ▲일본의 비판: 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쟁과 새로운 사고에 대한 이론(오하라 고우이찌) ▲보론: 국제관계에서의 민족적 · 국가적 · 계급적 이해(포즈냐코프)
- [논단] 오늘의 세계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문제들을 둘러싼 국제논쟁(신현준) ▲상호결합된 세계에서의 자본주의(프리마코프) ▲현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본질은 변했는가(이찌노네 히데후미) ▲정치경제학 교과서 건본의 구성

한마당 / A5신 / 306면 / 4000원



화제의 책

現代天文學 (상·하)

趙慶哲 지음



'아폴로박사'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천체물리학자 조경철박사가 6년여의 집필 끝에 최근 대학수준의 천문학교과서로 4X6배판 1천면이 넘는 방대한 부피의 「現代天文學」을 펴냈다.

무크창간호

민족영화

민족영화 연구소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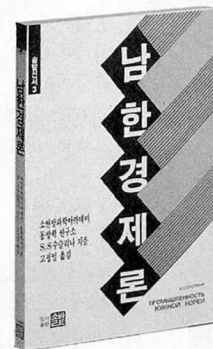


한국영화의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길'을 모색함으로써 민족영화의 가능성과 진로를 제시하는 이색영화무크 「민족영화」가 창간됐다. 지난해 발간된 「레디고」 제2집 「새로운 한국영화를 위하여」를 발전적으로

이색출판

남한경제론

S.S. 수슬리아 지음 / 고정일 옮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분석의 토대를 둔 남한경제 비판서 「남한경제론」이 번역,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소련연방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소속의 '남한학' 학자로서, "과연 남한은 신흥공업국의 성공적인

상 · 하 두권으로 나누어 천문학의 개화에 서부터 21세기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의 모든 것을 풍부한 사진과 도표를 곁들여 개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 및 발견 성과를 폭넓게 망라한 점, 천문학의 미래지표적 감각을 중시하여 서술한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수차례씩 해외여행을 했다고 밝히는 저자는 "꼭 필요한 사진들을 별도로 구할 길이 없어 소장도서들이 가위질로 불구가 되곤 한" 이 책이 우리 천문학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도 천문학 전공학과를 둔 대학이 6개로 늘어난 지금, 모처럼만에 보는 이 방면의 본격적인 우리말 저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평가된다.

大光文化社 / B5 / 1012면 / 3200원

계승한 이 「민중영화」는 특히, 기존 영화의 소시민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젊은 영화인들의 움직임을 한데 모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 창간호에는 특집으로 '노동계급운동과 민족영화운동'이란 주제 아래 「5공이 6공인데」 「천만 형제여 총단결하라」 「깡순이, 슈어 프로덕츠 노동자」 등의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영화인들의 작업보고서를 수록했다. 또한, 민족영화론의 이론적 지침을 모색해본 2편의 논문 「민중영화의 당면과제와 임무」 (이효인), 「민중영화운동의 조직실천적 임무와 과제」 (이정하)를 신는 한편, 광주 사태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오! 꿈의 나라」에 대한 평을 실었다. 그밖에 「집시꽃 당신」 「칠수와 만수」 「매춘」 등을 비판한 정병각의 논문도 관심을 끈다.

친구 / A5신 / 286면 / 3800원

발전모델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즉, 제국주의시대에서의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불균등발전법칙을 당면시하는 관점에서, 남한경제의 발전도상국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로의 이행과정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남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발전이 뒤진 나라들을 착취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제국주의국가들의 더더욱 강력한 착취대상국으로 남아있다"고 파악된다.

남한공업의 수출지향적 진전과 다국적 기업활동, 그리고 자금공급원 등에 특히 주목한 새로운 분석패러다임을 통해, 흔히 '성공'으로 지칭되는 남한경제의 발전상에 대한 색다른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 적이다.

보론으로 역자의 논문 「한국경제분석 시론」을 함께 묶었다.

솔밭 / A5신 / 334면 / 4200원